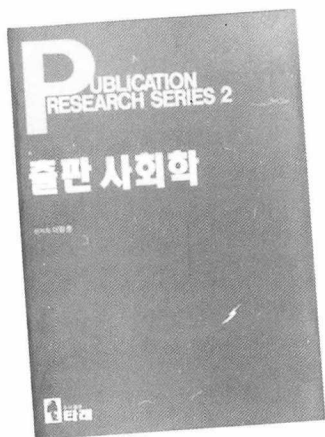


# 출판학 정착 위한 연구논문모음

이정춘 엮음 「출판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시각에서 출판의 사회적 현상을 조명”한 책. 그동안 출판학 분야에 대한 저자 이정춘(중대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 전공 주임교수)씨의 연구논문들과 저서들을 정리한 것.

우리나라의 ‘출판학’은 지난 30여년간 대학 밖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엄청난 열정으로 선구자적 연구를 한 ‘출판학 연구 제1세대’의 “현실적인 경험을 통한 이론화”의 양상을 보여왔으나 이번 ‘출판사회학’은 그 이론들에 비로소 ‘과학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앞으로 독립적 출판학 연구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연구”라고 이야기된다.

이 책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2장 ‘출판학 연구 모형의 체계화’와 ‘출판학의 사회학적 이론 영역’은 출판학과 출판 사회

학 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논의이며, 제 3, 4, 5장 ‘출판 매체의 특성과 조직’ ‘정보화 시대의 매체경쟁과 출판’ ‘출판 매체의 사회적 기능’은 출판매체론으로서 출판의 매체적 특성과 다매체 경쟁 시대의 출판의 미래, 그리고 출판의 사회적 기능이 정리되어 있다. 제 6~9장 ‘문화의 空復현상과 출판문화’ ‘한국의 베스트셀러 연구’ ‘문화 기술로서의 독서와 그 기능’ ‘다매체 경쟁 시대의 독서 교육’에는 문화 기술로서 독서와 문화 정책적 차원에서 독서 환경의 문제성이, 제 10~14장 ‘출판인의 게이트키퍼(Gate Keeping)론’ ‘경제성장과 출판잡지의 발전’ ‘자본주의의 생산양식과 출판연구의 방향’ ‘문화산업론과 출판학 연구의 논의(Agenda)’ ‘지식의 국제 유통과 저작권’에서는 ‘게이트 키퍼’로서의 출판인과 문화산업론에서의 출판학 연구 문제 그리고 국제 지식 유통과 저작권의 제문제 영역들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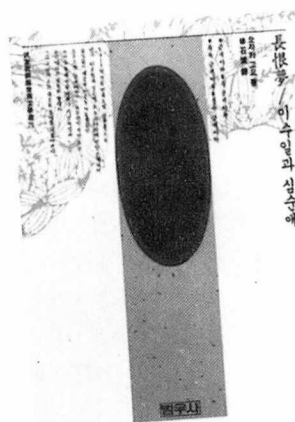
이렇듯 아카데미의 독립된 연구 영역으로서의 과학화를 이루어낸 이 책은 출판학 이론을 기존의 術(Kunde) 차원에서 과학(Science)의 길로 안내한다. 그래서 출판 관계자들은 “앞으로 출판학이 독립 학문으로서 발전해야 하며 머지 않아 4년제 대학에도 출판학과가 정착될 것이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책을 발행한 ‘타래’는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서적 잡지 신문 레이아웃 분석」 「한국 출판문화 변천사」 등 출판·편집 분야 전문출판사.

타래/B5 변형/568면/12000원

# 이수일과 심순애의 ‘장한몽’ 원작

오사키 고요 지음 「金色夜叉」



1913년 「長恨夢」이란 제목으로 번안된 후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연극과 영화로 개작되어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표어’를 만들어내고 “대동강변 부벽루에 산보하는……”으로 시작하는 유행가까지 퍼뜨리는 등 당시 우리나라 대중의 정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작품 「금색야차」가 번역 출간되었다. 「장한몽」이나 「이수일과 심순애」는 그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 결말 등 여러 면에서 원작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이번 범우사 판본은 그 속편, 속속편, 신 속편까지 통틀어 온전히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저자인 尾崎紅葉은 한 「日本文學史」에서, 비유가 아닌 실제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인물. 일본 최초의 ‘文學結社’인 ‘碩友社’의 핵심 멤버로서 기관지 ‘我樂多文庫’를 통해 ‘擬

古典主義’(서구화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복고적 경향을 배경으로, 일본의 고전문학을 의식적으로 재평가했던 문학경향)운동을 전개한 그는 우리의 언문일치체에 해당하는 ‘雅俗折衷體’를 확립시킨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금색야차」는 일본의 ‘호색적 풍속소설’을 구어체 문장의 산문정신으로써 계승한 ‘일본적 탐미의 전형’이라 불린다.

1897년 1월 1일부터 6년간 단속적으로 「요리우리신문」에 연재되었던 원작은 일본에서도 “남녀노소, 16,7세의 처녀도, 돌보기를 쓴 노인도 탐독”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역사인 서석연 경성대 명예교수는 “저자 특유의 뛰어난 美文으로, 돈과 사랑이라는 대립된 개념을 내세워 메이지시대의 연애풍속도를 그려냈기 때문에 선풍적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번역본 말미에는 후쿠다 세이진(福田清人)의 「금색야차」와 메이지 문학, 류민영 단국대 예대 학장의 논문 「「금색야차」와 「장한몽」이 해설로서 실려 있다. 특히 뒤의 글은 “「장한몽」의 일본 원작과 번안 과정, 그리고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비밀을 밝”혀 “우리나라의 굴절된 현대사와 대중의 비뚤어진 정서를 짚어”보고 있다.

류교수는 그 글에서 「장한몽」을 일본정서의 ‘번태수용’으로 규정한다. 유포 모델이 급속히 붕괴됨으로써 대중이 심한 도덕적 허탈감을 느낄 때 ‘황금이나 사랑이나’는 대비적 명제로써 대중의 관심을 ‘도피적 오락’으로 인도, 한국인의 의식을 잠재웠다는 것.

범우사/A5신/416면/6000원

<p><b>엔지니어링 플라스틱</b> A5신/182면/값 6,000원 藤重昇永著·崔炯植訳</p>	<p><b>電氣法規·技術基準解説</b> A5신/742면/값 12,000원 鄭海相編著</p>	<p><b>레이저와 映像</b> A5신/192면/값 6,000원 韓國科學技術院 先任 研究員 理學博士 曹在岳 外訳</p>	<p><b>基礎 超電導 物理學</b> A5신/250면/값 8,000원 A·C·로즈 인네스·E·A·로드릭 共著 釜山大學校 物理學科 教授 理學博士 金永哲 外譯</p>	<p><b>強大國의 技術霸權</b> A5신/255면/값 5,000원 基礎科學研究支援센터 所長 工學博士 姜博光 譯</p>	<p><b>技術革新의 經濟學</b> A5신/371면/값 6,500원 韓國科學院 財團 事務總長 經濟學博士 權原基 譯</p>	<p><b>尖端產業技術事典</b> A5신/584면/값 12,000원 日本通産省 省 外 譯 日本通産省 省 外 譯 編</p>
<p><b>海洋鑛物資源</b> A5신/150면/값 5,500원 서울大學校 自然科學大學 教授 理學博士 朴容安 譯</p>						
<p><b>뉴 세라믹스</b> A5신/208면/값 6,000원 坂野久夫 著·金在永 訳</p>						

# 다양한 경향의 추리소설 앤솔로지

한길사 刊 「세계의 걸작미스테리」



에드거 앨런 포의 「모그 거리의 살인」을 추리소설의 효시로 보는데, 그 작품은 단편이었다. 뒤를 이어 영국의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발표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홈즈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거의 단편이었다. 이처럼 추리소설의 탄생에서 발전기까지 단편들이 그 주역을 담당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추리소설의 가장 알맞은 형식은 단편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추리소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단편 추리소설의 정수를 모아놓은 선집이 발간되었다. 29명의 29편의 작품들은 추리소설 특유의 흥미진진함과 단편 특유의 완벽한 플롯이 어우러져 추리소설을 본격문학의 결까지 정도로 생각하던 독자들조차 엄청난 흡인력으로 견인해 추리소설 애호가로 변모시켜 놓는다.

이 선집을 엮은 '추리평론가' 정태원씨는 우리나라에서 단편 추리소설이 냉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할 정보의 양이 많아져 장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출판사 측에서는 단편집은 판매가 안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독자들의 기대에 맞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어서 그는 외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뛰어난 단편들이 「엘러리 퀸 미스테리 매거진」 「알프레드 히치콕 미스테리 매거진」 등의 전문지와 일반잡지에 계속 수록되고 있으며 이 작품들은 다시 앤솔로지에 수록되어 단행본으로 독자들에게 소개된다"고 말한다.

전3권의 「세계의 걸작미스테리」에는 전통적인 본격 추리소설 외에도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악을 그리는 심리 서스펜스 소설, 유모어 미스테리, '논리가 주체가 되는' 안락의자형 추리물 등 추리소설의 온갖 계파들이 얼굴을 내밀어 독자들의 두뇌를 체조시키고 있다.

'미스테리계의 왕'인 엘러리 퀸, 물리적·기계적 트릭이 아닌 심리적 맹점을 노린 '밀실 트릭' 기법을 즐겨 사용하는 존 디슨 카우, 등장인물들의 어두운 과거에 수수께끼의 초점을 맞추는 마가렛 밀러, 미국의 진정한 탐정을 창조한 대릴 하메트, 「화씨 451°」의 레이 브래트버리, 성경이나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아가사 크리스티 등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길사/B6변형판/각 320면 내외/각 3500원

# 최초로 완역된 기독교문헌의 고전

성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하나님의 도성」



기독교 역사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함께 기독교문헌의 금자탑이자 대고전인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 일명 神國論)이 국내 최초로 완역되었다.

이 책을 기획한 세계기독교고전편집위원(김명혁, 손봉호, 이상훈, 이형기, 정성구, 홍치모)들은 "이 책을 참조하지 않고는 아무도 중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이 책의 위대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 책은 「참회록」을 제외한 저자의 어떠한 작품보다도 더 널리 읽혀졌으며 헤겔의 역사철학보다 더 명쾌한 역사철학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

주지하다시피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고대 기독교의 교부이자 은총의 박사. 기독교계에서는 바울과 루터 사이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토마스 아 켈피스, 위클리프, 루터 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학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세만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서구정신과 동구정신을 구분하고 서구정신계에 생명과 발랄한 호흡을 불어넣은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하나님의 도성」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요약본과 발췌본만이 소개되었으나 이번 완역 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본격적인 아우구스티누스 연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 자신이 쓴 한 글에 의하면, "첫 다섯 권은 변명과 고난을 신들의 승배나 그 승배에 대한 금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반박한다. 다음 다섯 권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결코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들을 숭배하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다. 이 작업의 두번째 부분에는 12권이 포함되어 있다. 첫번째 네 권은 두 도성 즉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의 탄생을 묘사한다. 다음 네 권은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며 세번째 네 권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에 관하여 기술한다."

원래의 「하나님의 도성」은 전 2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10권은 역사적인 측면을, 11권~22권은 신학적인 측면을 다룬다. 이번 발간된 책들은 "본서를 나눌 때 반드시 두 권이나 다섯 권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저자의 유지를 받들어 다섯 권으로 묶여 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A5신/각 256면 내외/각 4000원

좋은 원고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한국출판정보센터를

찾아 주십시오

성의있게 검토해 드리고

책임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값진 재산이되고

원고를 저희에게 맡기면

좋은 책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합니다.

- 갖고 계신 원고에 꼭 알맞는 출판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정리가 필요한 원고는 필자의 뜻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 구상으로만 갖고 계신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해서 원하시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출판계약이나 인쇄, 인지관리 등의 문제를 책임있게 맡아 드립니다.

▶귀한 원고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출판정보센터 151-08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174 전화 : 522-3264, 521-9089, 팩스 : 525-5955